

## 주님 안에 안식 ✪

1차 세계 대전 중, 전방으로 나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연회가 베풀어 졌습니다.  
모임 행사가 끝날 즈음 한 젊은 장교가 일어나서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.  
그의 말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.  
그런데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기 전 앞서와는 다른 어조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

"우리는 머지않아 프랑스로 건너갑니다.  
그리고 죽을 가능성도 물론 뒤따릅니다.  
누구라도 좋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어야 할지 말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?"

아무도 그의 말에 대답해 줄 사람은 없는 듯이 고요한 적막 속에서 연회에 참석한 가수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.  
그리고는 군인들을 향해 멘델스존에 <엘리아>에 나오는 장대한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

"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, 그 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.  
그 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시리라.  
당신의 길을 그 분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라!  
악행 하는 자들로 인해서 스스로 초조해 하지 말라.  
오 주님 안에 안식이 있나니, 그 분을 향해 인내하며 기다릴지라.  
그 분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리라."

이는 인생의 위협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메시지입니다.  
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손으로 친히 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. 그것이면 충분합니다.

그분은 우리의 안전이시며, 위로이시고 기쁨이십니다.  
그리고 그 분의 영원하신 팔 안에서 완전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.

<천상의 노래/로버트 콜만>

☪.....여러분의 가장 깊은 한숨을 아시는 그분을 만나십시오. 「더 깊은 묵상」 제공